



1. 이든밸리 원주민 교회 사역. 2. 문서선교 (매달 한인신문에 칼럼 기고)
3.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교육.

(2021년 11월 7일)

웨인이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들을 예배에 데리고 왔다. 그의 얼굴엔 딸 가족을 전도하려고 애쓴 모습이 보였다. 설교가 마친 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내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느라 눈짓과 손짓을 했다. 몇 차례의 눈 마주침 속에서 나는 그의 제스처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어린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다. 당연히 그의 심정이 내게 전달되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다. 내가 뭐라고,, 그의 요청을 외면할 수 있을까? 예배후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두 아이를 위해 “평생토록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축복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아기들의 엄마 아빠보다 더 고마워하는 웨인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가 속에서 흘러나왔다 “주여 이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 자손들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그리고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손들이 모두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2021년 11월 14일)

예배당안에 누군가가 악의적인 표식을 남겨 놓았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도록 유인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몇 번 넘어질 뻔했던 듯이다.

6년 전, 폐허가 된 예배당을 보고 그렇게 만든 사단에게 “나와 한판 붙자”고 선전포고했는데 그 전쟁은 지금 진행 중이다.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무장해제 시키셨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싸움판이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자신있게 이드밸리를 끝까지 품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 사단이 친절할리 없다. 원주민

선교마당

김문영 선교사의
북미 원주민 선교 이야기 (18)

[illegible]

처음 예배당을 방문했었을 때, 예배제전 건물 앞편의 분
위 기둥에 음향용 튜브를 다다랐을 때 비록 불어오는 강풍은
모여져서 마치 들끓는 파가리라는 소리는 마치 울음
한 자아를 환하게 일화 시트조 같았다.이제는 그리리
성을 출세 내기도 바작지만 우리가 울려드릴 수 있는
방명으로 장안을 드린다. 하루하루의 은혜만이 바로 마음
해진 마음을 높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행동력이 된
다는 것을 이 좋은 환상처럼 마음을 모아 거룩한
하루하루의 아침을 울려 드린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본문도 주시경이 만 국을 일시에 주는 나팔악은 역시들

[illegible]

고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0

님의 영광이 가려지도록 유인

해는데 그 저재의 지극 지해.

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

사단이 친절할리 없다. 원주

들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활한 방법을 다 동원하며 안간힘을 쓴다. 그러든 말든, 우리는 죽음의 언덕인 골고다를 새 생명의 발생지로 만드신 주님을 의지하기에 가끔 힘에 부쳐도 다시 힘을 낸다. 살아있는 동안 그분의 복음 전하겠다. “이든밸리어!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당신들을 영원히 다스릴 분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2021년 11월 21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시 후 뜨거운 물이 팔팔,, 지난 월요일에 이미 확인을 했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또다시 싱글벙글,,, 유전탐사팀이 석유를 뽑아 올리는 광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든밸리는 전화 불통 지역이었고, 지난주까지는 매년 추운 겨울철에도 교회 안에서는 찬물만 사용 가능했었다. 지난주 월요일, 한인 기도 동역자들이 재능기부를 해 주셨다. 알 수 없는 기구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드디어 교회에 따듯한 물이 나오게 해 주었다. 사단의 질투였나? 가끔씩 이든밸리 계곡을 타고 오는 강풍이(시속 120Km) 하필이면 그날 불어닥쳤다. 밖에서 문을 수리하시던 분은 거의 날아 가버릴 뻔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사명’이라는 공통분모 속에 처음 만난 분과 금세 친구가 되었고, 같이 나누는 점심은 하늘의 만찬이었다. 주님! 성전 수리하다가 영적 개혁을 시작한 요시아 왕처럼 이 마을에도 생명 살리는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2021년 11월 28일)

지난 몇 주간 동안 이든밸리 교우들에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진지해질 수 밖에 없는 우리는, 전달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기길 소원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남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없다. “나도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회개하여 주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며 부족한 영어 표현에 내 혼을 실었다.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이지만 내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며 호소하는데,, 집중하며 듣고 있던 한 젊은이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순간,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타협도 지혜다”며 내게 속삭였다. 그러나 우리를 이 작고 외딴 마을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이시다. 나는 그분의 말씀 전달자가 되겠다. 복음으로 정면돌파 하겠다!. 행여나 이든밸리 안의 복음 거부자들이 우리의 길을 막는 날이 온다 해도, 타협하지 않는 복음 사수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5일)

킷스의 딸 ‘케이트(가명)’는 30대 초반 나이에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수개월 동안 치료와 위급한 수술까지 받았다. 긴급할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라, 그 부모가 가끔 예배에 참석하여 딸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었다, 그러던 중에 킷스의 마음이 열렸고 우리가 마을의 중독자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다리역할을 톡톡히 했었다. 그와의 협력을 논의하면서 딸의 안부를 물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킷스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절망감이 묻어있다, 케이트는 우여곡절끝에 수술을 마친 뒤 퇴원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길거리로 전전하며 마약을 찾아 헤메고 있단다.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방금 경험했는데, 위급상황을 간신히 넘기고 다시 죽음의 구렁이로 가고 있다. 무지를 넘어선 무모함이다.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 나의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든밸리에 우리를 홀로 남겨 두지 마시고,,능력의 손길로 이곳에 역사 하소서!.

(2021년 12월 12일)

밥(Bob)이 ‘하이리버’에 살고있는 딸과 함께 왔다. 그녀는 “난 알콜과 마약 중독자였는데 5개월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독에서 벗어나 새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찬양도 잘 따라 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이해하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심이 그 가정에 함께하시는 것을 느꼈다. 예배 후에 내게 오더니 손을 내민다, 악수하는 줄 알았는데 슬그머니 내 손에 20불짜리 지폐를 건네준다. 뒤에 현금 바구니가 있는데 물랴나 보다. 문득 5년 전쯤에 그녀의 아빠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술, 알콜 중독자인데 교회 나오면서 썩~ 끊었다”. 이 부녀의 신앙고백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현실화시켰다. 더디다고 느끼는 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안에 살고있는 우리는,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살찌라도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 원주민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19일)

오늘도 일찍 이든밸리에 도착했다. 예배당은 간단하게만 청소해도 될 정도로 깔끔했다. 여유를 가지고 아이패드와 프로젝트를 무선으로 연결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떴다, 오랜 세월 동안 남아공과 이곳에서 강의와 찬양 시간에 혹독한 노동 착취를 했으니 그동안 고장 없이 버텨준 것은 감사하지만, 대체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먹통이 되어버렸으니 난감했다. “리더십은 위기 대처 능력에서부터!” 나 혼자 중얼거렸다. 이미 사망(?)하신 기계를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다. ‘디지털이 안되면 아날로그로!’. 초창기에 프린트해 놓았던 것을 사용했다. 언젠가는 고장 날 물건을 사용하면서도 대비하지 못한 내가 아직도 어리숙해 보인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실패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경배 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비록 설교를 위해서 아이패드에 준비했던 자료들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찬양과 복음전파의 열정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2021년 12월 26일)

아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조수석에 앉은 나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밤새 눈이 내렸고 이든밸리에서 나오는 길은 빙판인데 지금은 아내가 운전할 시간이다. 시동을 켜는 그녀를 힐끗 보니,, 환한 얼굴로 두 손을 핸들에 올려놓는 품이 수상하다. 눈을 반짝이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달려라~ 하니~” 노랫소리가 퍼지고 있고 신나게 달릴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가끔 한국 방문할 때 난기류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 난 무서워서 팔걸이를 꼭 잡고 눈을 감는데, 아내는 두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야호~ 한번더!!”한다. 우리의 성격은 하나님 작품이며 정말로 소중한 선물이다. 이토록 다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터에서,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이다.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길이 끝나는 곳까지 같이 가게 하소서, 그 길이 험하고 지독하게 외로워도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며, 죽음의 순간까지 가장 신뢰하는 친구로, 부부로, 동역자로 살게 하소서!. 내년에도 주님의 빛을 이든밸리에 비취 주소서!

(2022년 1월 2일)

발목에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면서 잠을 깼다. 벌레에 물린 것처럼 다섯개의 뽀루지가 생겼다.

이든밸리 교회 주변에는 늑대크기의 개 세 마리가 늘 나를 반기는데 까만 녀석, 누리끼리한 녀석, 하얀 녀석이다, 먹이를 제때 얻어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빵이나 과자조각을 주곤 했다. 어제 누리끼리한 녀석 머리를 쓰다듬어 줬었는데 그때 개벼룩이 내게 옮겨온 것 같다. 좁쌀크기의 벼룩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뒤, 손톱으로 가려운 곳을 십자 모양으로 꼭꼭 눌러대면서 벼룩이를 떨어내려고 입었던 옷을 모조리 세탁했다.

우리 삶에서 ‘교훈’ 아닌 것이 어디 있나? 방심은 내 마음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곤 한다. 그 연약함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뇌할지라도,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벼룩 같은 죄의 침투를 막아내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 생각과 언어가 정결해지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든밸리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신실하고 거룩한 종놈이 되게하소서!

(2022년 1월 9일)

교우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우리 원주민들의 노래와 춤이 죄인가요?”.

원주민 사역을 처음 접했을 때 한 선교단체의 홍보 영상물에서 원주민 소녀가 울먹이면서 “우리 마을에 선교사가 오더니, 너희 문화는 악하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허공에 대고 그녀에게 대신 사과했다.

문화는 ‘삶의 틀’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위한 규율을 만들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르치며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구어간다. 복음을 알기 전에 형성된 문화 속에는 성경이 금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신다. 하나님 나라 문화를 건설하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원주민들에게 성실히 전달하여,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축복의 문화가 이든밸리에 정착되기를 매일 소망한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끝까지 신실한 일꾼으로 살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16일)

내가 실수를 저질렀던 그 순간에, 나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었다면!

게을렀고 실패했던 날들을 주께서 내 삶을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정하셨다면!

교만했고 남을 비판하고 낙심했던 그 시각에, 주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셨다면!

오늘의 일기가 ‘완료형’이 되어, 천사들의 장엄한 나팔소리가 들리는 마지막 날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라! 나와 이야기해보자” 하셨던 주님이 감사하게도 “지금 내 안에 거하라”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진행형’이다!. 하나님께서 “네 삶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하시지 않고,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매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일 것이다”(히브리어 성경 번역)고 하셨다.

우리의 기쁨과 희망은 가끔 희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말자,, 하나님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시다,

(2022년 1월 23일)

오늘 사역지로 출발을 위해 차에 오르면서 그간 수고해준 차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캐나다에 정착할 때도, 그리고 원주민 부락을 찾기 위해 위쪽으로는 에드몬튼, 남쪽으로 미국과의 국경 마을까지, 그리고 지금의 이든밸리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역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7년 동안 우리의 발이 되어 준 차와 동행하는 마지막 날이다. 수개월 동안 기도 동역자들의 헌금이 차량 구입가격의 절반 정도가 되었고, 드디어 내일 새로운 발이 되어줄 차를 가져온다. 오늘 유난히 더 많은 골골 소리를 내며 달리는 이 차가 그리워질 것 같다.

앞으로 5~7년 정도를 같이 할 새로운 차량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지만, 선교지를 퇴임하는 낯은 차량에 우리의 미래도 보인다. 매일 함께했던 이 차를 내일 놓고 올 때 가슴이 찡할 것이 뻔하다. 벌써 몇 번 겪었던 일이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주께서도 아련한 마음으로 “수고했다”고 손잡아주실까? 책망없으신 주님의 안위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다.

(2022년 1월 30일)

나는 온유한 사람들의 성품이 부럽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예상치 못한 역경에도 평온을 유지한다. 강한 사람은 충격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울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많은 반대와 온갖 모욕을 받으셨지만 상처받는 대신 묵묵히 진리를 전하시는 일에 이 땅에서의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다.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만큼 마음의 상처를 허용한다. 때로는 자기의 상처에 자발적인 고통을 더한다.

많은 원주민이 쉽게 낙담하며 포기하는 삶의 패턴은,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습관이 한몫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친구 웨인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는 없었지만 침착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를 볼 때마다 내 조급한 성격을 후회하며 교정하곤 한다.

주님, 우리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마음의 상처로 보관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며 매일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2022년 2월 6일)

장례식 후에 예배실이 또 엉망이다. 예배당 안에 온갖 쓰레기를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이 ‘성전 청결’이었을 정도로 성전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권세)과 약속’이 있는 곳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내적 슬픔과 함께 영적 두려움이 있다. 오늘도 돌이켜 부지런히 청소 하는 데에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러다가 무심코 나온 말이 “우린 매 주일이 수전절이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침(세)레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기간인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 그 당시 헬라의 권력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모독했고,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봉헌한 날이 수전절이다. 예배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에서 매주 성전을 청결케 하는 수전절의 감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주님도 지키셨던 수전절의 경건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소서!

(2022년 2월 13일)

오늘도 여지없이 계곡에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친다. 말수가 적은 원주민들이 자기 차를 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 지난 수년 동안 찬양 시간에는 아내의 피아노 반주와 찬양을 인도하는 내 목소리만 들렸다. 교우들은 가만히 앉아서 돌하르방처럼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어느새 7년이 흘렀다. 예배 참석인원의 숫자가 교회 건강의 기준인 줄 아는 철없는 목회를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듯한 이 적은 무리와 희망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타협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늘 예배순서에 따라 “찬양 한 곡 부르자” 했는데 여기저기서 “두세 곡 더~부릅시다!” 한다. 찬양후에 가사를 설명한 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했더니 돌하르방들이 입을 연다 “아-멘!!”. 이분

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으나 우린 행복자가 분명하다. 교회들이여,,당신들은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2월 20일)

아들 가족이 방문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컴퓨터 게임을 하던 손녀가 마우스의 건전지가 다 소모된 것을 알고 내게 와서 “할아버지 빠떼리 있어요?”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깜짝 놀란다 “선유야, 너 지금 빠떼리라고 했어?” 선유는 끄덕이더니 미소를 지었다. 한국말이 서투른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국식 발음으로 했다. 토속 한국인들은 건전지를 “배러리”라고 하는 미국식 발음이 영~ 어색하다. 나도 한국인답게 빠떼리라고 했다가 낭패당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손녀는 그런 발음을 귀담아듣고 있다가 분위기가 민망하지 않도록 할아버지의 편안함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했다. 남을 배려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질문이 내 마음을 움찔하게 했다. “너는 원주민들의 단점을 얼마나 보듬어 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있니?”. 조용히 두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드린다, “주님,,죽을 때까지 저의 잘못을 고치고 또 교정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2월 27일)

올해 1월 첫 주부터 이든밸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다. 다니엘서와 함께 묵시서로 분류되는 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와 형상을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 오용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단골 메뉴판이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 불변한 메시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을 이든밸리 교우들에게 설교하기로 계획한 것은 이분들만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영적 인식’ 때문이다. 이번 시도가 무모할 수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음이며 영원한 소망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알게해서 북미 원주민들도 가슴 벅찬 희망을 품고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목자의 소박한 마음뿐이다. 지금까지는 교우들이 관심을 보여주면서 내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6월까지 계속될 요한계시록 교육에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6일)

예배 마치고 나와서 차에 앉았는데 백미러에 지치고 수척해 보이는 한 노인의 얼굴이 보인다. 아무 말 없이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힘겨운 삶을 사는 노동자의 얼굴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증언할 만큼 낡아져 있다. 내가 찡그리니 그도 찡그린다. 눈을 크게 떠봤더니 그도 역시 큰 눈을 뜬다. 계속 젊을 줄 알았던 그가 나다. 달팽이의 자취처럼, 나무의 나이테처럼, 내 얼굴에 지난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마음으로 대비하지 못한 늙음에 당황하면서도 나 자신인 그 노인을 위로했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중이야!, 매일 주님과 같이 걷고 있다면 ‘늙음’이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당신이 성령님을 근심시켰던 수많은 세월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분께 더욱 충성하게나”. 늙은 부부는 오늘도 주님의 도구가 되어 같이 찬양하며 목이 아프도록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피곤해 보이는 그 노인은 밝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행복하지?”

(2022년 3월 13일)

내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브라질 현지인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구약 강의를 ‘줌’을 사용해서 한다. 식사 시간만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강행군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은 항상 내 가슴을 뛰게 하며 내 영혼에 활력이 넘치게 한다. ‘성경’은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의 기반이며 희망이요 능력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나도 이 열정만은 식은 적이 없다. 성경을 신실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얼어붙은 북극이든, 열사의 사막이든, 기근과 전쟁이 있는 곳이든, 마다치 않고 달려가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다. 난 유능한 설교자도 능력자도 아니지만 성경 교육을 위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싶을 뿐이다. 주께서 이 소망에 응답해 주시길 간청 드린다.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의 집중 교육이 포르투갈, 스페인어권 선교사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17일

북미 원주민 사역자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교사 부부가 되게 하소서.
2. 이든밸리 교회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으소서.
3. 우리 부부와 아들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 사고, 재난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 부터 지켜주소서